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자인 일거리: 일자리 창출

2017

디자인진흥원사

- 사이즈코리아센터 개소
- 『디자인트렌드 2018』 발간
- 디자인아이노베이션랩
(유통지원사업) 실시

한국 디자인사

- KT 인공지능 TV 기기자니
(GiGA Genie) 출시
- 삼성 QLED TV 발표
- <W쇼-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
전시회

한국 사회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 롯데월드타워 개장
- 문재인 정부 출범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작

고용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도 KIDP는 다양한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예를 들어 YTN,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한 벤처디자인상도 역시 국내 벤처기업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창업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도모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기로 접어든 2010년대 중후반에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관에서도 보다 강력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KIDP는 2017년부터 세대융합창업 캠퍼스, 디자인아이노베이션랩,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 등 디자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과 경력을 갖춘 우수 퇴직 인력과 청년 창업자를 연결하여 창업팀을 만들고 팀당 최대 1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초기 매칭된 21개 창업팀은 약 7개월간 일자리 창출 40명, 매출 8억 2200만 원, 추가 민간 투자 6억 8200만 원을 달성하였다. 그중 하나인 ㈜리틀캣의

트레드밀은 고양이의 행동습성을 학습하는 딥러닝(Deep-learning)으로 고양이 운동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동을 유도하는 IoT(사물인터넷) 제품으로 CES 2019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 주요 언론 보도는 물론 200여 건의 상담과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체결에 성공하였다.

디자인아이노베이션랩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겪게 될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등의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상품화와 유통 지원을 돋는다. 시장 검증과 사업화 계획 등 상품 기획은 KIDP가, 자금과 유통 지원, 생산은 민간 기업이 전담하는 구조다. 이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디포베베는 아기를 눕히지 않고 세운 채로 교체하는 훌딩 밴드형 기저귀 ‘로맘스’로 18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국내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 특허 출원을 마치고 2020년부터는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미만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초기 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이 있다. 창업 아이템 개발부터 기술정보 활동, 마케팅까지 창업팀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사무실·회의실·휴게실 등 공간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 유치, 소비자 반응 조사 등 성장 프로그램 선별 지원을 비롯한 디자이너·기술자 매칭도 지원한다.

또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비롯해,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 공동연구·개발·지도·자문, 자금 지원,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19년 처음 추진한 **스타일테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대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으로 평가받으며, 2019년부터 디자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국가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